



대통령상 받은 최태경 (주)두산동아 사장

시대에 맞는 '코드'와 인재, '일류 두산' 비결

'고객 평생교육과 가치실현 매진'
21세기 맞는 콘텐츠로
'세계적 문화기업' 지향

"회사 이미지때문에라도 품질 낮은 책은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그게 (주)두산동아의 장점이자, 때론 약점이지요."

단일 출판기업으로선 국내 최다 종수의 책 출간, 학습·유아 도서·교재 부문 랭킹 1위. 그런 화려한 이력에도, 60년의 관록을 자랑하는 (주)두산동아가 제19회 '책의 날'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는 주위 반응이다. 최태경 사장(60)의 얘기는 그런 자존심의 또다른 표현인 셈이다.

"학습물 시장이란 원래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경쟁 또한 치열하고, 모방 사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기존의 방식이나 연륜을 믿고 안주하다간 도태되기 십상입니다."

최 사장은 특히 "이 시대 마케팅의 핵심 코드는 '고객만족'인 만큼, 오로지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모습의 책과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두산동아의 기업 현장 또한 '고객의 평생교육과 가치실현'이다. 그런 뜻에 충실하기 위해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콘텐츠를 개발·제공해왔다. 다만 최 사장은 대통령상 수상에다 창사 60주년이란 겹경사의 의미를 그다지 과장하려 들지 않는다.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죠.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책과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에 '두산' 식구들의 관심이 쏠려있어요." '회갑'을 기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있다면 "이를 아껴 직원들에게 보너스라도 한 푼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주)두산동아의 내실있는 노력은 최근에도 빛을 발하고 있다. 《두산동아 자연관찰》은 자연과학 유관단체나 기관, 그리고 독자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으며 양질의 스테디셀러로서 가능성을 보였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e-러닝'이나 에듀클럽 등은 국내 디

지털 학습문화의 또다른 신기원을 이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최 사장은 "유아·아동의 지적·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단행본과 전집, 초·중·고 학습 교재, 교과서는 '두산'의 사업 원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학원 전문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전자사전 편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최적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사장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뭐니뭐니 해도 '사람'이라고 했다. 우수하고 사명감 넘치는 인재가 있을 때만 비로소 기업 역량은 무한대로 뻗어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와 교육은 (주)두산동아의 기업 전략 1호이자, 최 사장의 경영신조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대통령상은 (주)두산동아의 위상을 다시금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준 계기"라며 "굳이 또다른 '작은' 의미를 찾자면, 전문경영인이 이끌고 있는 기업에게 주어진 점이 좀 다르긴 하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지난 68년 두산그룹에 입사한 정통 '두산 맨'이다. 그룹내 요직을 두루 거친 끝에 98년 당시로서는 "출판을 잘 모르는 채" (주)두산동아 CEO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두고 "아마도 평소 책을 많이 읽는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짐짓 여유있는 해석을 가했다. 그는 지난 연초까지 (사)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이었으며, 지금도 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부회장 재임 시절 2005프랑프푸르트도서전주빈국 행사를 유치하는 데 앞장 서기도 했다. 그런 안팎의 역량을 지닌 CEO답게 그는 "앞으론 말 그대로 국내 최고의 교육 콘텐츠와 교육 영역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것"이라고 다부진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

글 박경만 기자 | 사진 김규동 기자